

2023년도 벌써 새로운 싹이 나오는 3월 봄입니다.

그동안 주안에서 평안들 하신지요?

만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전문인 단기팀이 보내온 현장의 따끈따끈한 벼 농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“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...”

“선교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.”

1) '은퇴 시니어 전문인 팀 사역'

사도행전 2장 말씀의 현장인 만바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. 지난 2월부터 2분의 시니어 전문인 팀 신진철, 최동환 단기 선교사님이 현지인 젊은이들과 팀을 이루어 가르치며, 땅을 일구고 벼 농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해 우기철 농사에 이어서, 비가 없는 건기에 시도하고 있는 2차 벼농사입니다. 이를 통해서 '우기와 건기의 이모작 농사'를 완성하게 되지요.

활동상황: 유목민들이 지속적으로 들여보내는 낙타, 염소, 소떼, 등 동물들로부터 막 솟아난 새싹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고, 중장비 사용을 위한 경유 확보 전쟁과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탱크를 설치하고 우물을 파는 등 쉽지 않은 사역들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,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.

기계화되는 농기구들: 한편 올해 년초에는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농기구들을 구입하고 비료를 후원받아서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출항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. 예정대로 5월 하순에는 만바 공동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또한 섭씨 25-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은퇴 후에 제2의 사역을 이어가며 꿈을 이루어 가시는 두분 시니어 단기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고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항상 강물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권홍량, 임헌진 드림.

추신: • 올해부터는 후임 선교사와 저희들의 소식, 그리고 현장 사역을 1차, 2차로 나누어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

• 사역 현장의 활동과 지난 여름 우기철의 만바 공동체 모습을 영상에 담아 첨부해 드립니다.



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BrZYXY4HNaA>